

# 화학이 들려주는 상식 여행 프로야구 왜? 나무방망이 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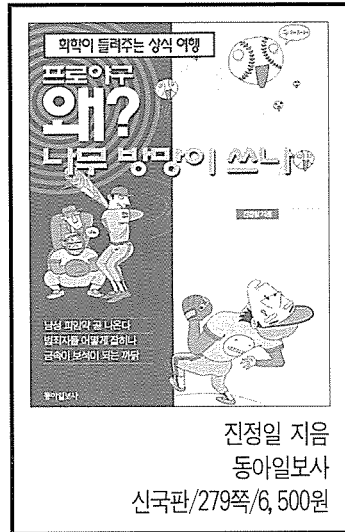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밝히고 이들을 다른 물질로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반응을 연구하는 학문이 화학인데 의식주를 비롯한 우리의 일상 생활이 물질의 성질이나 그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화학처럼 우리와 가깝고 끈끈하게 느껴지는 과학분야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화학은 딱딱하고 어려우며 우리 생활과는 동떨어진 분야라는 잘못된 인식이 도사리고 있고 학생들까지도 화학을 골치아픈 암기과목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화학이 얼마나 중요하며 슬기로운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가를 일반인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아일보에 연재하였던 '생활 속의 화학 이야기'라는 칼럼 속의 글을 한번 더 다듬고 또 보태 98개의 이야기로 정리한 것이다.

우리 주위에 흔한 화학 이야기를 되도록 일반인의 피부에 닿게, 이해하기 쉽게, 또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한 저자의 노력을 책 전체를 통해 읽을 수 있다.

책 제목, '프로야구, 왜 나무방망이 쓰나'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기발한 아이디어, 참신성, 독창성 그리고 유모어가 넘쳐흐르는 소제목들이 언뜻 보기에 독자들로 하여금 시사만평이나 생활에세이를 펼쳐든 느낌을 갖게 한다. '찰랑찰랑 매끄러운 머릿결로 가꾸려면', '갈색 미인의 비밀', '미용사는 부지런한 화학자' 등은 미용입문서의 내용같은데 이러한 생활과 직결된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화학의 언어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1장 화학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에는 '눈물의 화



학', '남성 피임약이 곧 나온다', '나폴레옹을 매료시킨 조세핀의 체취', '피할 수 없는 독극물 디옥신' 등이 실려있고, '제2장 밥상위의 화학'에는 '과일은 차게하면 달다', '복어알 해독제 아직은 없다', '국수를 쫄깃쫄깃하게 삶는 방법', '제3장 자연의 화학 드라마'에는 '개미의 통신수단', '페르몬', '마른 얼음과 젖은 얼음' 등 동식물과 자연현상에 얽힌 이야기, '제4장 프로야구, 왜 나무방망이 쓰나'에

'면도할 때 비누 거품 바르는 까닭', '기저귀는 물을 얼마나 먹나', '음주 측정기는 정직하다', '부드러운 비닐과 딱딱한 비닐', 끝으로 '제5장 클레오파트라는 왜 진주식초를 마셨나'에는 '분석화학 앞에서 꿈쩍 못하는 범죄자들', '토리노의 예수 수의는 가짜였다', '미인의 화장술' 등이 실려있다.

저자는 이 책에 실린 글들이 단순히 재미있는 읽을거리로 끝나지 않고, 화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으며, 우리 생활을 얼마나 윤택하게 해주고 있는가 하는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화학은 따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과학이 아니며 우리와 늘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저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아울러 화학의 원리와 화학 물질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이런 원리와 발견, 발명 뒤에는 어떤 과학적 노력이 있었는지를 독자들 스스로 찾아보라는 권고에도 뜻을 같이 한다.

화학계의 중진 고려대 진정일교수의 교양과학지식 확산을 위한 과학대중화 계몽서로서 일반인은 물론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도 널리 읽혀지기를 바란다. ①7

朴澤奎(건국대 이과대 화학과 교수)